

鄭昌熙著 「新地質學概論」

1970年 博英社發行 410 P

지금으로부터 13年 前에 韓國語로 된 地質學 서적으로서 「地質學概論」(鄭昌熙 著)이 刊行되어 學界에 공헌된 바 컸으며 韓國의 地質學 초심자들에게는 地質聖書라고 정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著者도 新刊 序文에서 밝혔듯이 과거 10여년 동안은 歷史上 어느 때보다도 관목할만한 自然科學의 大發展이 이룩된 때여서 새로이 보충 개정되어야 할 事實, 혹은 새로운 學說들이 많이 發表되었고 또한 國內 學界의 發展도 거듭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추이에 발맞추어 금번 鄭教授의 「新地質學概論」이 出刊된 것은 慶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第一部の 一般地質學編에서는 自然現象이 地球에 미치는 地質作用, 地形變化와 關連된 岩石分布 및 地質現象, 大陸漂移說과 해저확장설, 대양저지형, 신지구구조론등이 간결한 말로 서술되고 있다. 世界學界에서 最近 發表된 內容이나 측정치 그리고 韓國의 地質資料가 그대로 활용되어 있어 참고내용이 풍부하다.

第二部 地史學編에서 우리는 地球가 탄생된지 약 50억

년 이래 겪은 갖가지의 地質學的인 環境과 生物의 歷史를 개관할 수 있다. 著者는 地質學的인 思考를 바탕으로 하여 地球의 歷史를 차근차근 엮어 나가고 있으므로 本書를 통하여 우리는 地球史觀의 진면목에 接近할 수 있다.

第三部 응용지질학편에는 他응용과학과의 關係, 여러가지 類型의 광상 뿐만 아니라 석재에서부터 핵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地下資源을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重要地下資源이 언급되어 있다.

卷末에는 韓國地質概要가 첨부되어 있어 韓國의 岩石分布, 地質分布, 한반도 육지의 변천사등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된다. 本書는 많은 삽화와 현지사진이 인용되어 있고 용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글로 바로 잡아 意味진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욕심을 부린다면 卷末에 地質學一般에 關한 참고문헌의 소개가 빠져 있어 원하는 分野의 著書나 論文을 조회하고자 할 때 약간의 불편을 느끼게 된다.

〈金恒默：地質學科 助教〉

原書名; Le Probleme de l'Eau dans le Monde

Raymond Furon 著, Payot, Paris, 1963

The Problem of Water: A World Study

Paul Barnes 譯, Faber LTD, London, 1967

本書는 不蘭서 「파리」大學의 Raymond Furon 教授가 1963年 第1版을 발행한 후 1967年에 英國 London에서 그 번역판이 나온 것으로서 Furon 教授의 오랜水理地質學 및 地形學研究의 結果를 集大成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Furon 教授는 北部「아프리카」와 中東地域 그리고 「파리」盆地에 關한 많은 地形學 및 水文學의 論文을 發表해 왔으므로 本書에서도 자연히 그의 研究地域인 上記地域에 대한 重點의인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內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章에서는 물의 定義에 關해서 「물이란 무엇인가」에 關하여 여러 古典을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第二章에서

는 「물의 生物學的인 重要性」이란 題下에 물이 生物의 成長에 얼마나 필요하며 植物이 얼마만큼의 물을 消費하고 있는가, 그리고 蒸發散(Evapo-transpiration)이 물의 生物學的인 循環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가를 記述하였다. 第三章에서는 鹽水(salt water)와 海水에 關한 海洋生物學的인 海洋物理學的인 및 化學的인 性質을 자세히 기술하고 生物의 海洋起源說에 關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海洋의 生産性에 關해서 論하고 있다. 第四章에서는 淡水라는 題下에 水文學의 一般의 原理를 教科書와 같이 秩序整然하게 簡略하게 論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물을 공기중에 있는 물, 地表上에 있는 물, 地